

사무엘상 22.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 (삼상 20 장 1-42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뭇으로 피신한 다윗은 그곳까지 직접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후, 그 즉시 라마를 떠나 자신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형편과 두려운 마음을 나누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끝까지 다윗을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다윗을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며 지키려는 요나단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울은 요나단에게 욕하고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단창까지 던지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요나단은 어쩔 수없이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라마 나뭇에서 도망한 다윗은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은 찾았습니다. (1-11 절)

- 1)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마음을 숨김없이 나누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 이것은 그가 요나단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
 - ✧ 곧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였고, 위급한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 3 절 다윗의 고백 :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 ✧ 그 만큼 지금 다윗은 사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
- ✧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나는 누구를 찾아가 내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 장 23-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 위기와 아픔을 숨김없이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 그럼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3-8 절)

- ① 3 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해 줄 것 (5 절)
- ② 왕의 식탁에 동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해 줄 것 (6 절)
- ③ 만약 자신이 사울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자신을 죽여 줄 것 (7,8 절)

3) 요나단은 다윗을 안정시킨 후, 만약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즉시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9 절)

2.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12-23 절)

1) 그럼 요나단은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습니까?

- ①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분명하게 알려 줄 것을 다시금 약속! (12 절)
- ② 만약 사울의 악한 계획을 알고도 모른척해 다윗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를 구하고 바랄 것! (13 절)

➤ 잠깐 생각해 보기 : 그런데 당시 요나단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을까?

■ 이를 긍정적으로 추측해 볼 3 가지 증거

- ① 14 절 -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 ② 15 절 -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 ③ 16 절 -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당시 요나단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향한 욕심이나 자신의 유익은 조금도 구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하였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아버지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는 자를 치실 것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사울의 칼날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요나단은 다윗과 암호를 정한 뒤,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하였습니다. (18-23 절)

- ✧ 암호 = 화살 셋의 위치에 따라 다윗의 안전과 위험을 결정해 알려 줄 것 .
- ✧ 만약 요나단의 종에게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오면서 주워오라' 고 하면, 다윗이 안전하니 돌아올 것이고, 만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 더 가야 된다하면' 떠날 것.

3.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요나단을 향해 사울은 단창을 던지며 분노하였습니다. (24-34 절)

1) 사울은 초하루 왕의 식사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이 분명 무슨 문제가 생겨 부정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6 절)

- ✧ ‘부정하다’ = 율법적으로 더럽혀져서 저녁 식사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

■ 참고: 레위기 15 장 16 절 이하..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실 우리 모두는 율법적으로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더욱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계속해서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는 다윗을 의심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의 신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요나단은 약속대로 자신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변호.

3) 이에 사울은 심히 분노하여 욕하며, 당장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요나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 문자적 의미는 ‘반역한 불순한 자의 자식’ 이란 뜻이지만, 문화적 의미는 ‘매춘부의 아들’ 이란 수치스러운 욕!

②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 문자적 의미는 ‘너를 낳은 어미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들! 이라며 심하게 욕했다는 것!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특별히 31 절에서 요나단이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로 사울이 가르친 내용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은, 요나단도 안전하지 못하고, 요나단의 나라 (이스라엘)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

언제부터인가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이 다스려야 할 자신의 나라요 백성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선한 청지기적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4)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윗을 변호하였고, 이에 사울은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해하려고 하였습시다. (32-34 절)

4. 이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한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다윗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5-42 절)

1) 다윗은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해 준 요나단을 향해 땅에 3 번 엎드려 절하며 울었습니다.

2)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의 평안을 빌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윗 사이에 영원히 계심을 선언하였습니다.